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자살생각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and Suicidal Thought in Adolescence

이 경 희* · 김 지 영**

Lee, Kyung-hee · Kim, Ji-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self-esteem as a mediating role of suicidal thought from the traumatic experience in adolescence. This was a descriptive and correlational study in which 205 undergraduates took par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raumatic experiences and suicidal thought in adolescence. Traumatic experiences consisted of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physical neglect and emotional neglect. Second, we could confirm that self-esteem had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icidal thought and adolescent trauma-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suicidal thought may be reduced through the counselling programs to help improve students' self-esteem in the school.

Key Words: 자기존중감(Self-esteem), 외상경험(Trauma), 자살생각(Suicidal thought)

* (교신저자)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교수(khl645@kmu.ac.kr)

** 대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peer2001@naver.com)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져 2011년 한 해 동안 15,906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92년 자살은 전체 사망원인 중 10번째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에는 자살사망자 수가 15,566명으로 전체 사망자수 255,000명의 약 6.2%에 해당될 만큼 높아져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별 사망순위에서도 10-39세 집단에서 자살이 사망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1).

이러한 자살은 심리적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당사자의 잘못이며, 하나의 사건·사고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한국자살예방협회, 2012). 이렇게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계속되는 한 자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남미희 등, 2011).

청소년자살이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은 청소년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며, 청소년자살이 우리 사회구성원의 책임인 동시에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은 생물학적 요인에서부터 환경적, 심리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요인들 중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과 외상사건의 경험이 자살행동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Nock et al., 2008).

특히 청소년들이 외상사건 등 극한의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될 경우 성인들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으며(McCormick et al., 2010),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Stevens et al., 2003).

외상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자신, 환경, 타인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너져버리고 왜 자신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상태는 일시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대처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외상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외상사건에 대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Bonanno et al., 2011).

그러나 외상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성과 영향력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대처는 만성적으로 적응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나 적절한 대처는 혼란 이전의 상태로 삶을 정상화시키고, 더 나아가 외상 경험 후에 오히려 개인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Wild & Paivio, 2003).

외상경험과 자살생각 관계에 보호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사회적지지(Hirsch & Barton, 2011), 삶의 만족(Besser & Neria, 2009), 가족관계와 친구관계(Barr et al., 2012), 자기존중감(Yang & Clum, 1994), 낙천적 성격(Dervic et al., 2004) 등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존중감이나 낙관성 같은 인지적 변인들이 주목 받고 있다

(Holden et al., 1989). 문제해결 기술 훈련과 자기존중감을 증가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노력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Cole, 1989), 자기존중감과 자살생각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심미영 · 김교현, 2005).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외상경험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심리 · 정서적 적응 및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살을 예방하는 보호요인 중에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기존연구(Cole, 1989; Yang & Clum, 1994)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은 청소년기를 지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들이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을 회상하며 청소년기의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에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 규명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외상경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아동들의 위험요인으로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 사회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출생 및 성장과정상의 질병과 합병증, 그리고 낮은 지능 및 발달상의 장애들이 아동학대의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이현기, 2005).

심리사회적 요인은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특징을 의미하며, 부모에게 성가신 행동을 많이 하거나 화나게 하는 아동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이재연 · 한지숙, 2003). 부모들의 아동양육을 힘들게 하고 잠재적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아동의 기질이나 성미, 행동과 기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상경험에 포함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아동 · 청소년기의 외상 중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외상경험은 성인기의 부적응과 크게 관련이 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성학대의 경우 학대받은 청소년의 수치심과 미묘한 감정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진실의 은폐가 다른 학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 지로는 성학대 측정에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 · 청소년기의 학대 중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자살생각 그리고 자기존중감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학대행위를 말한다. 즉 부모나 양육권자의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직접적으로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김성준 · 김은정, 2009).

청소년이 가정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를 당하는 경우이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 경험이든 자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재엽, 2007). 특히 자녀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renson et al., 2001).

자살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 자녀학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자살에 대해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김재엽 · 정윤경 · 이진석, 2009).

특히 신체적 학대 경험은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정체감 형성에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쉽다. 특히 심리적, 정서적인 측면과 언어, 인지, 학습능력 등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아동 · 청소년의 나이나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 및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구타나 폭력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탈행위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습관적이고 극단적인 말로 자녀를 모독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한 적대적, 거부적 학대행위를 의미한다(라영선 · 현명호 · 차성이 · 윤선영, 2010).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주양육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리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의 자아에 상처를 입혀 아동을 심리적, 정서적 불구로 만드는 무관심하고 거부적인 양육적 특성이 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노와 적대감, 우울 그리고 불안 등의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Browne & Frielhor, 1986). 특히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는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며(박은주, 2008), 대인관계 특성과 관계있는 중요한 변수로 대인관계 불안과 관련이 있다(김재엽 · 양혜원, 1998).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서인식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정서를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정서 자극의 반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데 심각하게 어려움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양육권자에 의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습관적이거나 극단적인 언어폭력, 편애, 경멸, 모욕감, 수치심을 주는 비신체적인 형태의 적대적이며 거부적 처

우형태로 이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자아를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3) 방임

2000년 이후 아동방임 연구가 아동학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되면서, 아동방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방임이란 부모가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인 기본적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여 그 결과로서 아동에게 정신지체 및 우울과 과다행동 등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성장에 손상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식, 위생, 난방, 안전주의 등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여건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한다(황재성, 2001). 즉, 아동방임이란 부모가 역할이나 책임을 게을리 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적, 신체적 장애의 예로는 절도, 결석, 지각, 비행행동, 자살 시도 등과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발육부진 혹은 성장 또는 발달상의 심각한 결핍, 머리 부딪히기, 빨기, 물어뜯기와 같은 습관장애, 반사회적 또는 파괴적 행동과 같은 행동장애, 수면장애, 발음장애, 장난감 감추기와 같은 신경증적 특성, 히스테리 강박사고, 강박행동, 공포증, 건강염려증과 같은 신경증적 반응, 그리고 지나친 행동, 발달지체, 자살기도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며(이규숙, 1998), 성인의 성적 행위를 흉내내거나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몸짓과 괴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황재성, 2001).

이상과 같이 아동방임은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행해지는 양육, 감독이나 통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임의 영향으로 아동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방임을 부모의 방임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양육권자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기본적 의식주 요구, 의료적 요구, 교육적 요구,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거나 도덕적 탈선을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다(Prinstein et al., 2008). 더구나 자살생각은 자살이전에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Wichstrom, 2009)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장차 자살을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여야 할 문제이다.

자살생각은 스스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죽이고 싶은 생각(Bridge et al., 2006)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기에 상당히 자주 경험하는 현상이다.

조성진 등(2002)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남자의 26.9%와 여자의 34.9%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모두 자살시도를 하는 것은 아니나 자살생각이 자살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Yang & Clum(1994)은 자살생각이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의해 유발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포함한 인지적인 변인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8세 이전 생애 초기에 폭력 등의 부정적인 생활사건 경험 및 역기능적인 사고 양식과 개인의 자살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Yang & Clum, 1996), 아동기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에 인지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은 강력하여 이를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Yang & Clum, 2000).

이러한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 자살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학대경험의 치료를 받은 환자의 49%가 한 번이나 그 이상의 자살시도 경험은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및 행동과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Anderson, Yassenik & Rose, 1993).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Adams & Lehnert(1997)는 아동기 학대는 전쟁에 의한 외상보다 자살 행동에 있어 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우울증 환자의 자살 시도 보다 외상경험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더 높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이 자살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외상경험은 이후에도 개인에게 자살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Nilsen & Conner, 2002).

3.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에게 부여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하는데, 자신을 향한 호감, 보살핌, 헌신과 같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성영혜 · 이재연 · 서영숙 · 이소희, 2001). 즉, 자기 자신을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 개념의 한 측면인 자기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총체적인 자아 평가로서 자아가치나 자아상을 의미한다.

자기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 평가 내지 자기 가치감을 느낀다(Brown & Marsall, 2006).

반면 자기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와 같이 사회적 수용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며,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김미경, 2004).

따라서 자기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와 건전한 성격발달, 그리고 정신 건강의 기반이 되는 필수적 요건으로, 발달과 적응행동에 중요한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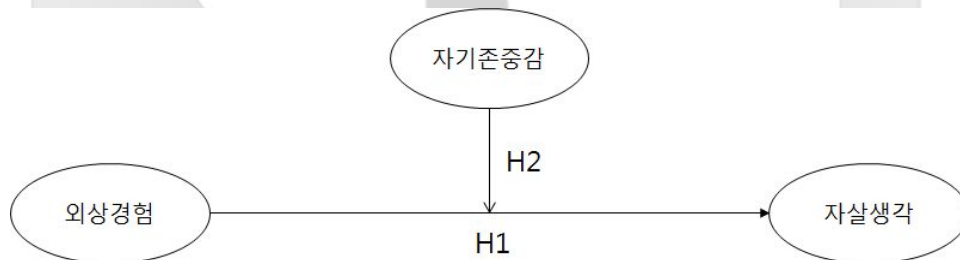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 외상경험에서 비롯되는 문제이지만 개인의

인지적인 변인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Yang & Clum(1994)의 연구에 따라 자살을 예방하거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기존중감을 선정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을 포함하는 외상경험(황재성, 2001; 김재엽, 2007; 김재엽 등, 2009)으로 인한 본인이 지각한 자살생각과 외상경험자의 자살생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본인의 심리적 보호요인으로서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선행 연구(성영혜 등, 2001; Yang & Clum, 1994)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한다(박성원·김상호, 2010; 이용택·최우성, 2010; 김진강, 2011; 고동우·여창원·문상정, 2012; 운승원·김창수·허성권, 2012; 유요섭·성낙봉, 2013; 김성필·김송죽·이민준, 2013).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1)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외상경험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한정하고 이러한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선행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황재성, 2001; 김재엽, 2007; 김재엽 등, 2009).

【가설 1】 외상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신체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가정환경 가운데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 시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Vinas et al., 2002). Berenson et al.(2001)은 가정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폭력목격이나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약물사용, 비행, 자살생각 등의 위험이 2 ~ 4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Lipschitz et al.(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43.7%가 신체적 폭력 경험을, 31.3%가 정서적인 폭력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들의 자살시도 경험은 무려 51%에 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Perkins & Jones(2004)는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 학대는 자살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신체적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정서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하게 하고, 정서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아동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김정옥·유도희, 1997).

양육권자의 정서적 학대를 통해 아동의 정서 표현을 억제할수록 부정적인 사고(Becker, Rinck, Roth & Margraf, 1998)나 정서 및 심리적 각성 및 스트레스(Lynch, Robins, Morse & Krause, 2001)가 더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기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가 피해자의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서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치심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어폭력, 정서적 냉담, 무시, 협박 등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하였다(박은주, 2008).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억압된 부정적인 정서는 메스꺼움, 현기증, 실신, 근육통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나며(신웅섭·채정민, 1996), 청소년들의 31.3%가 정서적 학대로 인해 자살시도 경험이 무려 51%에 달한다고 하였다(Lipschitz et al., 1999).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2」 정서적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방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

방임이란 부모가 역할이나 책임을 게을리 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조옥자·현온강(2005)은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방임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할수록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였다(남영옥, 2008).

Sullivan & Knutson(2000)은 가출청소년들 중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학대나 방임이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았던 경우보다 두 배 정도의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아동의 사망률을 비교하였을 때도 학대보다 방임에서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 다양한 형태의 학대가 미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이들 변인과 성격장애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Johnson et al.(2001)의 연구에서 아동기에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집단에서 성격장애 발달이 4배 정도 많으며, Tyrk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신체적/성적, 정서적/방임)이 있는 집단이 편집성, 경계선, C군 성격장애의 증상들을 보다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방임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유추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3」 방임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존재로 믿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개념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가치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Brown & Marsall, 2006).

Tafarodi & Swann(1995)은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자기 거부, 자기 멸시의 경향이 잦으며 살 능력,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부정적 사건은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아니면 상쇄해 버리기 때문에 정신건강 및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홍진아(2002)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기존중감은 자살충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높은 자기존중감은 자살시도에 부(-)의 영향을 미쳐 자살사고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낮은 자기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변인으로 간주되며, 높은 자기존중감은 삶에 대한 절망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살생각을 낮추어 주는 요인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2】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1」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2」 정서적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가설 2-3」 방임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외상경험

외상경험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경험으로 정의하며, 신체적 학대 8문항, 정서적 학대 8문항, 방임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조사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Straus et al.(1996)이 개발한 갈등전략척도를 Conflict Tactics Scale-parent-Child(CTSPC)를 번안하여 사용한 김세원(2003), 이주성(2005)의 설문을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방임은 ISCCA(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n Child Abuse)의 설문을 중심으로 이주성(2005)의 설문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 단계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등을 생각하는 단계로 정의하며, 자살생각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조사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Reynold(1988)에 의해 개발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SIQ)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3)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으로 정의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조사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살펴보면 Pope, Mchale & Chaighead(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를 실시한 최보가·전귀연(1993)의 설문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총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편의표본추출방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으로 수집되었다. 이들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상당수의 질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15부를 제외한 205부를 최종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한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발, 활용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단계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설문 항목들은 응답자로 하여금 각 항목에 대한 그들의 동의 혹은 반대하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관련 측정척도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항목-척도 상관관계, Cronbach α 계수 등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일부 항목은 제거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MRA)을 실시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지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성별 분포는 남성이 20.5%, 여성이 79.5%로 여성이 많은 편이었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20대가 전체의 90.7%를 차지하였다.

양육권자의 형태를 보면 친부모가 92.2%, 편모가 3.9%로 나타났으며 나머지가 편모, 편부, 기타, 조부모와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부친의 학력은 고졸이 43.9%, 대졸이 43.4%, 중졸이 8.3%, 대학원졸 이상이 2.9%, 국졸이 1.0%로 나타났다.

모친의 학력은 고졸이 57.6%, 대졸이 31.2%, 중졸이 6.8%, 국졸이 2.0%, 대학원졸 이상이 1.5%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24.1%, 전문대졸이 47.9%, 대졸이 24.9%, 대학원 이상이 2.1%의 분포를 보였다. 연평균 소득에서는 1,000~1,500만원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았고, 1,500~2,500만원이 22.8%로 전체분포의 약 62.2%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평균 월수입으로는 200~300만원이 30.2%, 400만원 이상이 26.6%, 300~400만원이 24.4%, 100~200만원이 11.7%, 일정한 수입이 없다가 4.9%, 100만원 이하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일반고가 91.2%, 실업고가 6.0%로 나타났으며, 특수고 및 기타가 각각 0.5%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외상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학대의 B1, B6, B8 항목과 방임의 C5, C6, C8, C10 항목이 기대와 다르게 다른 요인에 적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적재치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항목을 제거한 후 33개 항목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3개 항목이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Eigen Value	분산 %	Cronbach α
		1	2	3	4	5			
신체적 학대	A1. 부모님이 손으로 나의 팔, 다리 등을 때렸음	.731	.124	.018	.079	.263	8.875	26.89	.927
	A2. 부모님이 나의 온 몸을 마구 때렸음	.788	.126	-.039	.217	.108			
	A3. 부모님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음	.864	.061	-.027	.156	.053			
	A4. 부모님이 나를 향해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졌음	.817	.135	.002	.034	.120			
	A5. 막대기, 허리띠, 야구방망이, 빗자루 등으로 나를 때렸음	.749	.129	.023	.092	.201			
	A6. 나에게 말로 해도 될 일을 부모님은 매부터 들었음	.834	.054	.044	.127	.160			
	A7. 부모님이 손으로 나의 뺨, 머리를 때렸음	.809	.059	.011	.095	.207			
	A8. 부모님이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셨음	.647	.178	-.019	.186	.318			
정서적 학대	B1. 나를 방에 혼자 가둔 적이 있음*	-	-	-	-	-	4.576	13.86	.849
	B2. 내 특권을 빼앗거나 외출금지를 시킨 적이 있음	.144	.063	.015	.150	.723			
	B3. 소리를 치거나, 고향을 지르거나, 비명소리를 낸 적이 있음	.269	.085	-.017	.109	.818			
	B4. 나한테 욕을 하거나 악담을 한 적이 있음	.311	.006	.019	.082	.800			
	B5. 멀리 보내거나 집에서 쫓아 내겠다고 말한 적이 있음**	.185	-.031	.074	.159	.755			
	B6. 나를 때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때리지는 않았음*	-	-	-	-	-			
	B7. 나를 바보, 게으름뱅이 또는 비슷한 말로 부른 적이 있음	.237	.221	.134	.122	.697			
	B8. 칼이나 다른 물건을 가지고 위협을 가한 적이 있음*	-	-	-	-	-			
방임	C1.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부모님은 관심이 없었음	-.020	.771	.020	.084	-.019	3.293	9.98	.869
	C2.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음	.223	.589	.031	.129	.078			
	C3. 집밖에서 놀거나 지내도 부모님은 나를 내버려 두었음	-.013	.756	.071	.135	-.078			
	C4. 아무도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있었음	.124	.716	-.034	.102	.037			
	C5. 계절이나 크기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낸 적이 있음*	-	-	-	-	-			
	C6. 내가 아플 때도 부모님은 신경을 써주지 않았음*	-	-	-	-	-			
	C7. 어떤 친구들과 놀던지 간에 부모님은 상관하지 않았음	.157	.752	-.103	.134	-.026			
	C8. 이유 없이 학교를 나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음*	-	-	-	-	-			
	C9. 내가 무슨 책을 보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음	.139	.663	-.090	.191	.020			
	C10. 내가 말을 걸어도 귀찮아하며 잘 상대해 주지 않았음*	-	-	-	-	-			
	C11. 부모님은 나와 대화시간을 거의 갖지 않았음	.040	.695	-.199	.153	.217			
	C12. 부모님은 나와 의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할 때가 있었음	.138	.703	-.041	.094	.270			

(표 계속)

<표 1>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결과(계속)

요인명	측정문항	요인적재량					Eigen Value	분산 %	Cronbach α
		1	2	3	4	5			
자살생각	D1. 자주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듦	.100	.163	-.136	.789	.170	2.307	6.99	.857
	D2. 자살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한 적 있음*	.142	.180	.070	.593	.078			
	D3. 자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음	.061	.114	-.045	.731	.085			
	D4.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했음	.108	.207	-.053	.795	.177			
	D5. 내 인생은 더 이상 살아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음	.140	.167	-.174	.752	.167			
	D6. 자살은 내 존재를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음	.287	.135	-.121	.647	.000			
자기존중감	E1. 나는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음	-.034	.066	.831	-.059	.049	1.940	5.87	.899
	E2.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함	.037	-.055	.835	.069	.003			
	E3.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음	.050	-.111	.844	-.022	-.010			
	E4.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 할 수 있음	.031	.001	.840	-.023	.086			
	E5.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음	-.015	-.056	.745	-.127	.060			
	E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매우 만족함	-.057	-.107	.771	-.263	-.009			

* 는 요인분석에서 제거되어진 변수임, ** 는 신뢰도분석에서 제거되어진 변수임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고유값은 1.940에서 8.875에 이르는 다소 높은 값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 5개 요인은 전체 변량에 대해 신체적 학대 26.895%, 정서적 학대 13.866%, 방임 9.980%, 자살생각 6.991%, 자기존중감 5.879%를 설명하고 있고 이들 5개의 요인 모두는 전체 변량의 63.611%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Cronbach α 계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내적 일치성을 평가하였다(Nunnally, 1978).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계수의 값이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전체 문항들을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체적 학대는 $\alpha=.927$, 정서적 학대는 B5 항목이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으로 나타나 제거를 한 후 신뢰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신뢰도가 $\alpha=.849$ 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신뢰도가 $\alpha=.869$ 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의 경우 D2가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나타나 제거를 한 후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신뢰도가 $\alpha=.857$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존중감의 경우 6개 항목은 신뢰도가 $\alpha=.899$ 로 나타나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3> 변수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1	2	3	4	5
신체	1.74	.947	1	.509**	.310**	.359**	-.011
정서	2.0	1.040		1	.259**	.336**	.060
방임	1.61	.707			1	.398**	-.124
자살	1.5	.752				1	-.215**
존중감	3.3	.953					1

** $p<.01$

<표 2>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자살생각은 모두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자기존중감과는 정서적 학대를 제외하고 모두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설검정

1) 외상경험과 자살생각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는 비표준회귀계수(B), 표준회귀계수(β 값), 그 계수의 t 값 그리고 그 계수의 유의성(p값)이 제시되었다.

자살생각에 대한 외상경험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신체적 학대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t=4.58$, $p=.000$ 으로 채택되었다.

정서적 학대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t=2.495$, $p=.013$ 으로 채택되었다.

방임이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t=2.297$, $p=.023$ 으로 채택되었다.

<표 4> 외상경험과 자살생각

변수	B	β	t-value	Sig T
신체적 학대	.317	.299	4.580**	.000**
정서적 학대	.145	.182	2.495*	.013*
방임	.120	.165	2.297*	.023*

$R^2=.240$ Adjusted $R^2=.229$ DF=3 F=21.147 p=.000

* $p<.05$, ** $p<.01$

또한 회귀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신체적 학대가 다른 변수들 보다 자살생각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학대, 방임 순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권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이 증가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결정계수의 변화검정은 F-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 Sharma, Durand &

Gurarie(1981)가 제시한 조절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MRA)을 실시하였다. MRA는 결정계수 변화검증에서 조절변수라고 기대된 변수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으므로 조절변수로서의 특성을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표 5> 신체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단계별 변수명	자살생각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신체(A)	.283	.357	5.579**	.834	1.051	4.601**
존중감(B)	-.166	-.211	-3.292**	.116	.148	1.140
A*B				-.169	-.802	-3.160**
R ²	.173			.212		
ΔR^2				.039		
F 값				9.983		

* p<.05, ** p<.01, A: 신체적 학대, B: 자기 존중감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1단계 분석으로 분석대상 변수들에 대한 상호작용항의 투입에 따른 R²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효과 검증의 단계별 회귀식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4, 5,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설 2-1의 신체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와 자기존중감이 포함된 1단계 회귀모형의 R²값이 .173이고, 상호작용항목(신체적학대*자기존중감)이 추가된 2단계 회귀모형의 R²값이 .212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039만큼의 R²값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분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6> 정서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단계별 변수명	자살생각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정서(A)	.253	.350	5.444**	.897	1.241	5.365**
존중감(B)	-.186	-.236	-3.664**	.188	.239	1.783
A*B				-.201	-1.064	-3.998**
R ²	.168			.229		
ΔR^2				.061		
F 값				15.988		

* p<.05, ** p<.01, A: 정서적 학대, B: 자기 존중감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설 2-2의 정서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자살생각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와 자기존중감이 포함된 1단계 회귀모형의 R^2 값이 .168이고, 상호작용항목(정서적학대*자기존중감)이 추가된 2단계 회귀모형의 R^2 값이 .229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061만큼의 R^2 값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분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방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

단계별 변수명	자살생각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방임(A)	.401	.377	5.897**	.877	.824	3.582**
존중감(B)	-.132	-.168	-2.624**	.086	.109	.724
A*B				-.149	-.512	-2.021*
R^2	.186			.202		
ΔR^2				.016		
F 값				4.086		

* $p < .05$, ** $p < .01$, A: 방임, B: 자기 존중감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설 2-3의 방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정한 결과,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방임과 자기존중감이 포함된 1단계 회귀모형의 R^2 값이 .186이고, 상호작용항목(방임*자기존중감)이 추가된 2단계 회귀모형의 R^2 값이 .202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됨에 따라 .016만큼의 R^2 값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분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방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V. 결 론

1. 요약

외상경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있어왔으며, 외상경험에 따른 자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양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양육권자들의 외상경험이 스스로 그들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피양육권자들의 외상경험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피양육권자들의 외상경험과 자살생각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였고, 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연구의 모델 및 설정된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적 모델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제시한 6개의 가설 가운데 6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시절 경험한 외상경험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은 자살생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기 외상경험을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외상경험은 자살생각을 유발하여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Nilsen & Conner(2002), Yang & Clum(2000)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자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한 Kelly et al.(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자기존중감 변수가 청소년기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조절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기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에 자기존중감이 자살생각을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낮은 자기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Pinto & Whisman(1996)과 Overholser et al.(199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자기존중감이 자살의 보호요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권자와 청소년기 생활의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포함한 교육기관 담당자들에게 청소년기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방침을 입안하는데 몇몇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 외상경험이 그 시기를 벗어난 후에도 여전히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사고나 자살행동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이들이 자신의 인생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입이 필요하고, 또한 자살생각 변인 중에서 핵심변인인 외상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가정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에게 접근이 용이한 학교교사나 상담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점에서 심각히 고려되

어야 할 문제점으로 남는다.

셋째, 자살생각은 자살의 전초단계로 자살을 방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존중감이 외상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보호요인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인생목표를 학업과 관련된 비현실적 기대에서 자기계발과 관련된 개인적 목표와 현실적인 기대로 변화시키는 학교교육 및 상담전략이 효과적인 자살생각 감소 및 예방대책임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기 외상경험은 그 영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져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자기존중감이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을 낮추어주는 결과는 자기존중감이 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기존중감 향상을 통해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한 조선영 등(2005)의 연구결과와 불안과 자기존중감의 상호 작용 효과를 연구한 Dubois & Flay(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자기존중감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가치 있는 유능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관광분야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감정노동자로 종사하는 종사원의 외상경험이 서비스품질이나 조직 적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외상경험에 대한 연구로서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더 많은 연령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외상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의 변화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척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항목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들이 나타나 이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의 척도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동우·여창원·문상정(2012). 중국여성의 가부장적 갈등과 여가경험: 성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4: 1-22.
- 김미경(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기 존중감.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준·김은정(2009).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점진적 노출기법을 적용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8(2): 395-414.
- 김성필·김송죽·이민순(2013).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학교브랜드 이미지가 한국유희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대학생의 한류와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 38(1): 1-22.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2007). 한국인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 김재엽 · 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6-62.
- 김재엽 · 정윤경 · 이진석(2009). 가정 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정옥 · 유도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20.
- 김진강(2011).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과 직무태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 *Tourism Research*, 33: 177-197.
- 남미희 · 허대석 · 전태연 · 이민수 · 조맹제 · 한창수 · 김민경(2011). 우울증, 자살 그리고 한국 사회. *대한의사협회지*, 54(4): 358-361.
- 남영옥(2008).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6(3): 117-126.
- 라영선 · 현명호 · 차성이 · 윤선영(2010).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21-34.
- 박성원 · 김상호(2010). 호텔관리자의 역할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1: 23-46.
- 박은주(2008). 부모의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연구*, 18(1): 192-229.
- 성영혜 · 이재연 · 서영숙 · 이소희(2001). 아동심리학.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응섭 · 채정민 역(199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 충격적인 사건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이해. Peterson, Kirtland C , Prout, Maurice F , Schwarz & Robert A.(199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 a clinician's guide*. 서울: 하나의학사, 289-324.
- 심미영 · 김교현(200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 운승원 · 김창주 · 허성권(2012). 전시박람회 서비스스케이프와 감정반응간의 관계 연구: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6: 265-286.
- 유요섭 · 성낙봉(2012). 고객 역할 외 행동이 종사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절초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7: 223-248.
- 이규숙(1998). 아동방임 · 학대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택 · 최우성(2010). 호텔기업에 있어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31: 1-21.
- 이재연 ·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이주성(2005).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해리와 감정표현 불능증의 매

- 개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기(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조선영 · 이누미야오시유키 · 한성열(2005).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공격자기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12.
- 조성진 · 전홍진 · 김장규 · 서동우 · 김선옥 · 함봉진 · 서동혁 · 정선주 · 조맹제(2002). 중 ·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1(6): 1142-1155.
- 조옥자 · 현온강(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최보가 · 전귀연(1993).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SEI)의 구성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집*, 1-15.
- 통계청(2011). 201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한국자살예방협회(2012).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태도 조사. 서울: 한국자살예방협회.
- 홍진아(200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도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성(2001).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D. M. & Lehnert, K. L.(1997). Prolonged trauma and subsequent suicidal behavior: Child abuse and combat trauma reviewe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0: 619-634.
- Anderson, G., Yassenik, L. & Ross, C. A.(1993). Dissociative experiences and disorders among women who identify themselves as sexual abuse survivors. *Child Abuse & Neglect*, 17: 677-686.
- Barr, S. C., Hanson, R., Begle, A. M., Kilpatrick, D. G., Saunders, B., Resnick, H. & Amstadter, A.(2012).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family cohe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itnessed community violence and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2): 239-262.
- Becker, E. S., Rinck, M., Roth, W. T. & Margraf, J.(1998). Don't worry and beware of white bears: Thought suppression in anxiety 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39-55.
- Berenson, A. B., Wiemann, C. M. & McCombs, S.(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5(11): 1238-1242.
- Besser, A. & Neria, Y.(2009). PTSD Symptoms, Satisfaction With Life, and Prejudicial Attitudes Toward the Adversary Among Israeli Civilians Exposed to Ongoing Missile Attack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4): 268-275.

- Bonanno, G. A., Pat-Horenczyk, R. & Noll, J.(2011). Coping flexibility and trauma: The perceived ability to Cope with Trauma(PACT) scal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3: 117-129.
-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47: 372 - 394.
- Briere, J.(1992). Child abuse trauma: Theory and treatment of the lasting effec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Brown, J. D. & Marshall, M. A.(2006). The three faces of self-esteem. In M. Kernis (Ed.), *Self-esteem: Issues and answers*(pp. 4-9). New York: Psychology Press.
- Feldman Barrett, L.(1997). The relationships among momentary emotion experiences, personality descriptions, and retrospective ratings of emo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100-1110.
- Browne, A. & Finkelhor, D.(1986).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9(1): 66-77.
- Cole, D. A.(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Dervic, K., Oquendo, M. A., Grunebaum, M. F., Ellis, S., Burke, A. K. & Mann, J. J.(2004). Religious affiliation and suicide attempt. *American Journal Psychiatry*, 161(12): 2303-2308.
- Dubois, D. L. & Flay, B. R.(2004). The healthy pursuit of self-esteem: A comment on and alternative to the Crocker and Park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 415-420.
- Hirsch, J. K. & Barton, A. L.(2011). Positive Social Support, Negative Social Exchanges, and Suicid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9(5): 393-398.
- Holden, R. R., Mendonca, J. D. & Serin, R. C.(1989). Suicide,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 test of an interactive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4): 500-504.
- Johnson, J. G., Cohen, P., Smailes, E. M., Skodol, A. E., Brown, J. & Oldham, J. M. (2001). Childhood verbal abuse and risk for development of personality disorders: Directions in Psychiatry. *The Journal of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in Psychiatry*, 21: 417-421.
- Kelly, T. M., Lynch, K. G., Donovan, J. E. & Clark, D. B.(2001). Alcohol use disorders and risk factor interactions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31(2): 181-193.
- Lipschitz, D. S., Bernstein, D. P., Winegar, R. K. & Southwick, S. M.(1999). Hospitalized adolescents' reports of sexual and physical abuse: A comparison of two self-report

- measur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2: 641-653.
- Lynch, T. R., Robins, C. J., Morse, J. Q. & Krause, E. D.(2001). A mediational model relating affect intensity, emotion inhibi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Behavior Therapy*, 32: 519 – 536.
- McCormick C. M., Mathews I. Z., Thomas C. & Waters P.(2010). Investigations of HPA function and the enduring consequences of stressors in adolescence in animal models. *Brain and Cognition*, 72: 73-85.
- Nilsen, W. & Conner, K. R.(2002). The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childhood and adult victimiz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1(3): 49-62.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and, R. C. & Lee, S.(2008).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 133 – 154.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Overholser, J. C., Adams, D. M., Lehnert, K. L. & Brinkman, D. C.(1995). Self-esteem deficits and suicidal tendencie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919-928.
- Perkins, D. F. & Jones, K. R.(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547-563.
- Pinto, A. & Whisman, M. A.(1996). Negative affect and cognitive biases in suicidal and nonsuicidal hospitaliz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58-165.
- Pope, A. W., McHale, S. M. & Craighead, W. E.(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Prinstein, M. J., Nock, M. K., Simon, V., Aikens, J. W., Cheah, C. S. L. & Spirito, A. (2008). Longitudin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following inpatient hospitaliz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92-103.
- Reynold, W. M.(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harma, S., Durand, R. M. & Gurarie, O.(1981). 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3): 45-57.
- Stevens, S. J., Murphy, B. S. & McKnight, K.(2003). Traumatic stress and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hip to substance use, mental health, physical health, and HIV risk behavior in a sample of adolescents enrolled in drug treatment. *Journal of Child Maltreatment*, 8(1): 46-57.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llivan, P. M. & Knutson, J. F.(2000).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24(10): 1257-1273.
- Tafarodi, R. W. & Swann, W. B., Jr.(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22-342.
- Tyrka, A. R., Wyche, M. C., Kelly, M. M., Price, L. H. & Carpenter, L. L.(2009).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ult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fluence of maltreatment type. *Psychiatry research*, 165(3): 281-287.
- Vinas, M. D., Negri, R. M., Ramirez, F. C. & Hernandez, D.(2002). Zooplankton assemblages and hydrography in the spawning area of anchovy(*Engraulis anchoita*) off Rio de la Plata estuary(Argentine, Uruguay). *Mar. Freshw. Res*, 53(6): 1031-1043.
- Wichstrom, L.(2009). Predictors of Non-Suicidal Self-Injury Versus Attempted Suicide: Similar or Different?.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3(2): 105-122.
- Wild, N. D. & Paivio, S. C.(2003). Psychological adjustment, coping and emotion regulation as predictors of post traumatic growth.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and Trauma*, 8: 97-122.
- Yang, B. & Clum, G. A.(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3): 177-195.
- Yang, B. & Clum, G. A.(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Skills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2): 127-139.
- Yang, B. & Clum, G. A.(2000). Childhood Stress Leads to Later Suicidality via Its Effect on Cognitive Function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3): 183-198.

2013년 6월 10일 원고접수

2013년 6월 16일 1차 수정본 접수

2013년 6월 23일 2차 수정본 접수

2013년 6월 27일 최종본 수정본 접수

3인 익명 심사필